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8호

(총파업 특보 1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2월 10일(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은 벌써 시작

작년 말부터 정권은 '정규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규직이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정규직'은 주로 대공장, 공공기관 등을 얘기한다. 바로 금속노조가 타겟이 된 것이다. 경기의 하이디스는 전원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대전의 PLA 역시도 조합원 75%를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내쫓았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에 맞서 일반직 노조가 만들어졌고, 삼성테크윈도 일방적인 매각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다.

금속노조 신년투쟁선포식에서 총파업 결의

1월 24일 서울역에 금속노조 지부, 지회까지 지역과 현장을 책임지는 간부들이 모두 모였다. 이 자리에서부터 총파업 투쟁은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악이 가져올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금속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은 임금은 낮게,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릴 것이 뻔하다. 정부는 자본이 원하는 내용을 수두룩하게 준비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

가 낮은 사람은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도 차별해서 줄 수 있도록 한다. 노조가 아무리 단협을 훌륭히 만들어도 언제든지 해지하고 취업규칙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국회에서는 노동법을 개악하고 사업장에서는 임단협을 망가뜨려서 결국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가 모두 모여 싸운다!

금속노조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전교조 노조 인정 투쟁 등 수많은 노조들이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올해 4월 총파업은 정말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심지어 한국노총 제조부문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3월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투쟁의 최선두에 서왔던 금속노조의 자부심과 올해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4월 총파업에 나서자.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노동자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

4월 총파업 성공해야 노동자가 산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악<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저성과자 퇴출? 찍히면 잘린다
일반해고요건 완화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회사는 아주 간단히 찍은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노조 탄압과 현장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대표적인 개악입니다.



능력에 따라 임금지급? 관리자는 옛장수
직능급제 도입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퍼뜨리겠다는 임금제도 개악. 정부가 정작 흉내내려는 독일과 같은 장인(마이스터) 제도나 평가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설사 급히 만든다 해도 현장관리자의 평가와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조건 악화를 감수하며 회사에 줄서고 성과에 목매는 현장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용, 임금, 노동조건... 노조 동의는 필요없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우리가 피땀흘려 만들고 지켜온 단협이 무력화됩니다. 정부 내용대로라면 과반수 노동자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내면 노조 동의없이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건 없건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밀어넣을 정책입니다.

인사권은 성역, 싫다면 해고다

단협개악 가이드라인



정부가 나서서 단협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노동조건을 바꾸고 징계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단협을 개악해 노조파괴하는 꼴입니다.